

七步詩

조조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조비가 왕위를 이어 받았다. 그런데 셋째 아우인 조식이 인품과 재주가 뛰어나 늘 신경에 거슬렸다. 결국은 백성들이 오히려 조식을 따르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. 조비는 아우 조식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.

“내가 그렇게 재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 지금 내 앞에서 일곱 걸음 이내에 시를 지어라. 그렇지 못하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.”

형의 명령을 받은 조식은 이 자리에서 시를 짓는데, 이것이 그 유명한 七步詩다.

煮豆燃豆其
豆在釜中泣
本是同根生
相煎何太急

‘콩깍지를 태워 콩을 삶네.
콩은 가마솥에서 우네.
원래 한 뿌리에서 나왔거늘
서로 볶기를어찌 그리 급한가?’

서로 한 뼛속에서 나왔거늘, 형이 어찌 아우를 죽이려 드느냐는 의미를 콩과 콩깍지에 비유하여 핵심적인 시구를 구성한 것이 돋보인다. 조비는 이 시를 듣고 아우의 재능에 감탄하며, 크게 깨달아 뉘우치고 아우가 행복하게 살도록 배려했다고 한다.